2004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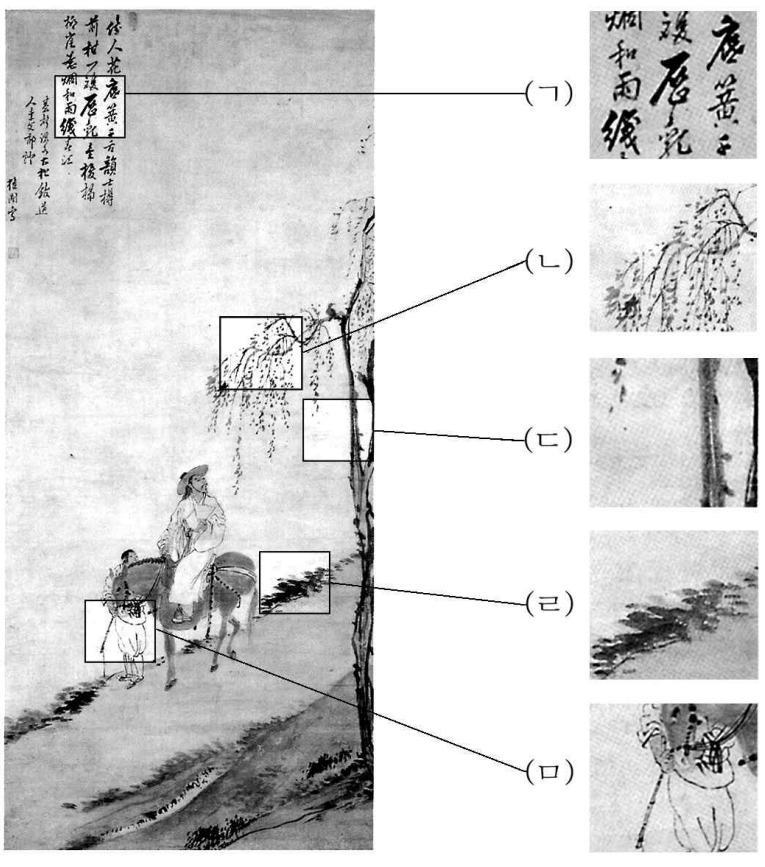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1				1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이 강연에서 연사가 말하는 '사선'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점]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ㅁ)

2. 두 학자 간의 견해 차가 드러난 원인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로봇 산업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②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 때문에
③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국가 간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④ 로봇 산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⑤ 로봇 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 간의 관계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3.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목이나 명칭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수업은 일방적 전달보다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④ 이론으로서의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실제적 사고와 적용을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⑤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언젠가 자기도 그러한 수모를 당할 경우가 생긴다.

4. 이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강연의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한 학생은? [1점]

① 첫째 학생 ② 둘째 학생 ③ 셋째 학생
④ 넷째 학생 ⑤ 다섯째 학생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5. 광고가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면 생각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②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③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④ 선진 사회를 이루려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6. 광고를 듣고 대화하는 두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자는 근본적 해결 방법을, 여자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② 남자는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여자는 의지가 강하다.
③ 남자는 부정적 가치관을, 여자는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④ 남자는 이성적 태도를, 여자는 감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서로가 이야기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2 언 어 영 역

7. 다음 만화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글의 주제를 정하기 위한 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길을 걷다보면 위험한 도로 시설물이 너무 많잖아.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이 있으므로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하는 글이 어때?

② 우리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글은 어떨까?

③ 이웃의 무관심 때문에 좌절하는 장애인들도 많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자는 글은 어때?

④ 장애인도 남의 도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글은 어떨까?

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어렵잖아.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쓰면 어떨까?

8. 〈보기〉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주 5일제 수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란 보고서를 쓸 때, 이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 질문 : 주 5일제 수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답변
  -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평일의 수업 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학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과외 수업비의 지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 사회의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학생만 집에 남게 되는 맞벌이 가정에서 생활 지도에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평일의 수업 부담이 늘지 않도록 주 5일제 수업에 맞게 법정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조정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②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가 이미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지적한다.

③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이 건전하게 체험을 쌓을 수 있는 놀이, 문화, 체험 학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④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교과 학습뿐 아니라, 폭넓은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⑤ 교육 당국이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휴업일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하여 부모가 있는 가정과의 결연을 유도해 주거나, 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9. '남녀 출생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 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지 전개 과정	주요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남녀 출생 성비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	
문제의 원인은?	• 남아(男兒)를 선호하는 전통적 의식 구조가 지배적이다. •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 제도가 많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 국민 의식을 변화시킬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 양성 평등 사회를 제도적으로 구현한다.
⬇	
구체적인 방안은?	[A]

① 학교 교과과정에서 양성 평등의 성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②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姓)도 따를 수 있게 한다.

③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④ 직장 내에서 성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적하고, 남아 선호 의식을 개혁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0. '청년 실업,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쓰기 위해 글감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수집하기

ㄱ. 상당수의 청년층이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ㄴ. 실업 상태가 계속되면 취업하려는 의지와 근로 의욕이 약화된다.

ㄷ. 청년 실업률이 2002년 6.5%에서 2003년 8.7%로 증가했다.

ㄹ.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확산되어, 산업 인력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ㅁ. 고용 인원수가 적은 첨단 업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ㅂ. 기업은 신규 사원보다는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ㅅ. 최근 들어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 '편하고 쉬운 일'을 찾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ㅇ. 대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ㅈ. 청년 실업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조직하기

<1회>
제목: 청년 실업,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 ㄱ, ㄷ ····· ⓐ

<2회>
제목: 청년 실업률 증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개인 차원: ㅂ, ㅅ ····· ⓑ
- 사회 차원: ㅁ ····· ⓒ

<3회>
제목: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 개인 차원: ㄴ ····· ⓓ
- 사회 차원: ㄹ, ㅈ ····· ⓔ

① ⓐ: 'ㄱ'과 'ㄷ'은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다룬다.
② ⓑ: 'ㅂ'은 사회 차원의 내용이므로 <2회>의 '사회 차원'으로 옮긴다.
③ ⓒ: 'ㅇ'은 사회 차원의 원인에 해당되므로 'ㅁ'에 이어 'ㅇ'을 추가한다.
④ ⓓ: 'ㄴ'은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므로 ⓐ에서도 활용한다.
⑤ ⓔ: 'ㅈ'은 '청년 실업에 따른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에서 2단계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1단계 : 단어로 놀기
먼저 특정 단어 ㉠을 생각해 보고,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쓰시오.

• 2단계 : 문장으로 놀기
연상된 단어들 중에서 한 개의 단어 ㉡을 선택한 후 아래 조건에 맞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조건 1) ㉠을 주어로, ㉡을 서술어로 문장을 구성한다.
2)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3) 감각적 이미지 중 하나가 드러나게 한다.

• 3단계 : 단락으로 놀기
2단계에서 만든 문장을 뒷받침할 4~5개 문장으로 된 단락을 완성하시오.

① 단풍은 울긋불긋 아름답다.
②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③ 엄마는 따뜻한 보온밥통이다.
④ 추억은 희미한 연기처럼…….
⑤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바탕이다.

12. 〈보기〉는 한 외국인이 '떡볶이와 한국인'이란 제목으로 쓴 글이다. 이 글을 고쳐 쓰려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기〉

빨갛게 부글거리며 끓는 떡볶이가 처음에는 낯설었다. 실제로 먹어 보니 입안이 얼얼할 만큼 ㉠매운 것 같았다. 떡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마치 고무를 씹고 있는 듯해서 좀처럼 목구멍 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화끈거리게 매울 뿐더러 막상 씹은 것도 넘기지 못하니 너무도 괴로웠다. ㉡<u>한국에 와서 처음 맛본 음식은 떡볶이였다.</u>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그 매운 맛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달콤한 맛이 스며 나오는 것 아닌가. 침이 감돌며 떡이 넘어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시 ㉣떡볶이를 향해서 손이 뻗쳐졌다. ㉤한국 사람도 마치 떡볶이 같지 않을까 생각하니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기대되기까지 하였다.

① ㉠은 '매웠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야.
② ㉡은 화제를 제시한 내용이므로 문단의 처음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어.
③ ㉢은 연결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로 고쳐야 해.
④ ㉣은 '떡볶이에 손이 갔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⑤ ㉤은 글의 흐름상 어색하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13.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 〔1점〕

① 이렇게 도와 줘서 고마와요.
② 자유와 방종은 서로 틀린 거야.
③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삼갑시다.
④ 방학을 맞이하니 마음이 설레인다.
⑤ 비행기가 멀리 날라가고 있습니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점〕

〈보기〉

- 실연을 당한 나는 (㉠)인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다.
- (㉡)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 나의 성격은 이지적인 데 반해 그녀의 성격은 (㉢)이다.

	㉠	㉡	㉢
①	감상적(感傷的)	감정적(感情的)	감성적(感性的)
②	감상적(感傷的)	감성적(感性的)	감정적(感情的)
③	감정적(感情的)	감상적(感傷的)	감성적(感性的)
④	감정적(感情的)	감성적(感性的)	감상적(感傷的)
⑤	감성적(感性的)	감정적(感情的)	감상적(感傷的)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나)
〔A〕【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어느 ⓑ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핫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15. (가)~(다)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고행을 통해 순수한 자아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서는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실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⑤ (가)와 (다)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6. (가)의 ㉠과 같은 발상과 표현이 사용된 것은? 〔1점〕

① 마침내 어둠까지도 커다란 깃발인 그 날 앞두고 / 우리에게 이 어둠이 얼마나 환희(歡喜)입니까? - 고은, 기(旗) -

②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김소월, 초혼(招魂) -

③ 내 마음은 낙엽이요, /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 그대를 떠나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

④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을 /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

⑤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리 // 술 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놀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17. ⓐ~ⓔ 중에서, (가)의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나)의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기다리리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어느 날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될 수 있다면

① 화자의 심리 변화를 뚜렷이 전달하기 위해 연을 나누어야겠어.

② 이별의 슬픔을 부각시키기 위해 행과 어순을 바꾸어야겠어.

③ 음악적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일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야겠어.

④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추가해야겠어.

⑤ 시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의미가 모호한 표현을 바꾸어야겠어.

19.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심리적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이별의 고통을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승화(昇華)시키고 있다.

③ 화자가 직녀의 할 일을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④ '물살, 바람' 등의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견우와 직녀가 겪을 시련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⑤ '견우와 직녀'라는 설화적 소재를 이용해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줄거리] 6·25전쟁 중 마을에 나타난 소녀[명선]는 피난길에 공습으로 부모를 잃었으나, 어머니의 배려로 몇 개의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가 죽은 후 숙부조차 금반지를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는 숙부로부터 도망친다. 금반지 한 개를 내놓으며 마을에 머물게 된 소녀는,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나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A]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 때도 그 애는 나한테 내기를 걸어 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찔어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아, 저게 무슨 꽃이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橋脚)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 만 ㉠콘크리트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 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 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숭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이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숭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두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곡에 끝에 그 애는 기어코 그 쥐바라숭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 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숭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싯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 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 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 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빰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 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病的)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냈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숭꽃이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 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처럼 흘러내리다가 그 밑을 가로지르는 다른 선 위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두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아무리 쥐바라숭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 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 윤흥길, 기억 속의 들꽃 -

2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작품의 주인공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고백하듯이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충하기도 한다.

21.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① 작가는 전쟁의 참상 자체보다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을 고발하고 있어.
②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③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아야겠어. 그러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④ 결말 처리 방식이 인상적이야. 여운을 남기면서도 이전의 사건을 확연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거든.
⑤ 우리가 실제로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간애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

22. 〔A〕를 〈보기〉와 같이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 그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원경〕 청명한 하늘 밑에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카메라 서서히 가깝게 다가가면서〕

- 폭격으로 끊어진 다리
-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다.
- 앙상한 철근이 싯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江心) 쪽을 향해 곧장 뻗어 나가다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려져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다.

명선 : 얘, 오늘도 한 번 해 볼래?
나 : 뭘?
명선 :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자고.
나 :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래. (머뭇거리며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다리 쪽으로 다가간다.)
명선 : (나를 앞지르며) 내가 먼저 간다.

명선은 치마 자락을 펄렁거리며 어느 틈에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올라앉아서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고 있다.

①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②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를 소상히 알 수 있게 한다.
③ 사건이 느슨하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준다.
④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⑤ 인물이 처한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3. ㉠~㉤이 작품 속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를 고려할 때, 가장 이질적인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보기〉는 '나'가 소녀에게 쓴 편지이다.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늘 나라에 있는 명선이에게

명선아!

ⓐ 쥐바라숭꽃을 기억하니? 네가 앙증맞고 예쁘다고 한 꽃.

그 꽃만 보면 네가 떠올라.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 중에 부서진 다리에서 놀던 기억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단다. 끊어진 다리 위로 오르지 못하고 떨던 내 모습이 그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했던지!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져.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단다. 하늘의 비행기는 무서워하는 네가 다리에서의 그 ⓑ 위험한 장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 ⓒ 금반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나중에 용기를 내서 그 다리에 올라갔어. 그리고 ⓓ 네가 숨겨 둔 헝겊 주머니를 발견했단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다. 어른들 때문에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어른들이 미워졌어. ⓔ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아픔을 달랠 수 있었단다.

명선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때는 쥐바라숭꽃으로 꽃묶음을 만들어 줄게.

안녕!

① ⓐ : 아무렇게나 이름 붙인 들꽃이지만 소녀의 삶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② ⓑ : 위험한 장난을 즐긴다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
③ ⓒ : 어린 '나'로서는 소녀의 절박함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지. 하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었을 거야.
④ ⓓ : 어른들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숨겨 놓을 생각을 했을까? 어른들이 너무한 것 같아.
⑤ ⓔ : 어머니는 다른 어른들처럼 욕심이 없었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맹목적이라는데 어린 명선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달랐을 거야.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는 거시 벅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갇 고기 뛰노ᄂᆞ다.

㉠ 년닙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쟝만 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 靑청篛약笠립은 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無무心심흔 白빅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水슈國국의 ᄀᆞ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읻다.
　닫 드러라 닫 드러라
ⓓ 萬만頃경澄딩波파의 슬ᄏᆞ지 容용與여ᄒᆞ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 人인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옥 됴타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나)

새로 거른 ㉡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을 받아 번쩍이네.
응헤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
　　-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

(다)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섶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슭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 닢담배 퓌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 사설시조 -

*기음 : 김, 논 밭에 난 잡풀
*신들메고 :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매고
*버려 : 벼리어. 날카롭게 갈아
*삭다리 : 삭정이. 산 나무에 붙은 죽은 가지
*도슭 : 도시락　　*부시고 : 비우고

2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② (가)와 (다)에는 생활인의 바쁜 일상사가 나타난다.
③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④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26. 〈보기〉를 참고로 (가)를 이해할 때, 밑줄 친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1점]

〈보기〉

윤선도는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다. 강직한 성품으로 당쟁에 휘말려 여러 차례 귀양살이를 했다. '어부사시사'는 작가가 말년에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조이다. 그의 작품에 드러난 흥취의 이면에는 세속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7.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나)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담을 것
-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지할 것
-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낼 것

① 끌어올린 그물에서 고기를 떼어내는 어부는 구릿빛 피부로 건강미가 넘쳤다. 만선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로 보였다. 나 역시 내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의 부자인 셈이다.
② 이윽고 경기는 시작되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우람한 사내들이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날아가는 공을 향해 질주하는 선수들의 허벅지는, 근육이 살아 꿈틀거리는 듯 하였다. 골이 터지고 관중은 환호하였다. 그 속에 섞여 함께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들이 부러웠다.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요, 영웅이었다.
③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얻은 권력과 명예를 욕망 때문에 다 잃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언젠가는 다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몸을 더럽힌단 말인가? 욕망이란 밑 빠진 항아리 같은 것이 아니던가!

④ 주방장은 체격이 좋았다. 공처럼 큼직한 밀가루 반죽을 다루는 데 이골이 나 있었다. 늘이고, 펼치고,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두 팔에는 울퉁불퉁 근육이 솟아올랐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으며, 국수 가닥을 뽑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다. 자신의 일에 심취해 있는 그를 보니, 허황된 꿈에 복권이나 사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⑤ 노인은 냉수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방망이를 깎기 시작하였다. 익숙한 손놀림은 신명까지 느끼게 하였다. 몽둥이가 방망이로 변하는 과정은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다듬기를 수 차례, 오히려 내가 더 조바심이 날 무렵에서야 방망이를 내게 주었다. 그 분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8.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대비되는 두 사물을 견주어 대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대상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③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달픈 생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④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적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② ㉠~㉢은 시적 화자의 풍류를 나타낸다.
③ ㉠은 '綠녹蓑사衣의'와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④ ㉡은 흥겨운 노동과 연결되는 소재이다.
⑤ ㉢은 노동 후의 한가로움을 드러낸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신(文身)은 말 그대로 몸에 새기는 무늬이다. 문신 문화에 관한 고고학이나 인류학, 그리고 역사학의 자료를 참조하면 문신은 특정 문화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화 현상이었다. 알프스에서 발견된 5천여 년 전 청동기 시대의 사냥꾼 미라에도 문신이 있었고 19세기 또는 20세기 초까지 석기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남태평양의 섬이나 중국 서남부의 여러 민족들도 문신 습속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시 삼한 시대에 문신 습속이 있었다.

인류 문화의 보편적 현상인 문신은 고통스러운 신체 장식술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표현한다. 역사서의 기록이나 구술 전승에 따르면 문신은 어로·수렵 등 생산 활동 중에 있을 수 있는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했다. 또 문신에는 문신을 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문신을 한 종족과 동일 문신의 종족을 구별해주는 종족표지 기능도 있었다. 그리고 문신은 위치나 형태를 통해 신분의 고하(高下)나 결혼의 유무 등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때 문신하기는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문신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실용적 기능 외에도 미적 기능이 있다. 옷이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의 표현이듯이 문신 역시 문신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의 표현이었다.

오늘날에도 원시 사회의 문신이 지니고 있던 이런 기능들은 축소되거나 변형된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주술문신은 늘 승부에 몸을 던지는 스포츠 선수들의 몸 위에 남아 있다. 그들은 문신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승리를 기원한다. 문신의 미적 기능 역시 눈썹을 그리는 미용문신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신체에 남아 있으며, 예술문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르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종족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던 문신은 범죄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죄의 대가로 새기는 형벌문신의 영향과 유가적(儒家的) 신체관의 유산 때문에 반사회적·반윤리적 이미지를 ㉠ 불러일으키는 불온한 상징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유가적 신체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도전적 상징물이고, 몸을 화폭으로 삼아 새겨내는 전위적 예술이기도 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특정한 문신 시술을 범법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일부 새로운 세대들에게 문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를 부모와 가족을 매개로 국가에 연계된 것으로 인식해왔다.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었고, 필요하면 몸을 산화(散花)하는 것이 충(忠)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에게 몸은 더 이상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문신을 비롯한 피어싱·보디페인팅과 같은 신체 장식술과 변형술은 바로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의식 안에서 문신은 윤리의 차원을 벗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재탄생할 것이다.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 '차이들의 원만한 공존'을 재는 상징적 지표의 하나이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문신은 인류 문화의 보편적 현상이다.
② 미용문신은 문신의 미적 기능과 연관된다.
③ 문신은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④ 원시 사회의 문신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어 현대에도 지속된다.
⑤ 우리 사회에서 문신의 부정적 이미지는 유가적 신체관에 기인한다.

31.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① 개성의 표현인 문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② 문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③ 문신이 현대에도 계승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④ 문신이 특정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낸다니 정말 뜻밖이야.
⑤ 문신을 통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말하고 있어.

32. 위 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대상의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실제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대상을 친숙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33.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한 것은? 〔1점〕

① 환기(喚起)하는
② 유도(誘導)하는
③ 강조(强調)하는
④ 선양(宣揚)하는
⑤ 유인(誘引)하는

34. ㉡이 실천된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② 방송사에서 동성애자의 방송 출연을 허용하였다.
③ 정부에서 이산가족의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④ 회사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별히 대우했다.
⑤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현상이 절대적이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의 '사실'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관찰하여 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의 협약이다.

또한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가설'은 실험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며, 이 가설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모순이 없을 때 '법칙'이 된다. '우주의 어느 곳에 지적(知的)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가설은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추측'에 불과하다. 우주 어딘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로 입증되겠지만,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서는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한편, 과학자가 어떤 가설이나 원리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가도, 그렇지 않다는 확증을 발견하면 더 이상 '사실'이 되지 않는다. 원래의 가설이나 원리를 주창한 사람의 권위나 평판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종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 주장은 이천 년 이상 '사실'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갈릴레오는 이 사실에 의문을 가졌고, 여러가지 관찰을 통해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 결국 갈릴레오는 자유낙하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 즉,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정신에 입각하면 단 한 번의 실험으로도 '사실'을 바꿀 수 있다.

과학자는 연구 도중에 기존의 원리와는 다른 실험적인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험의 결과가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과학자는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과학자는 자신이 보고자 한 것과 자신이 본 것을 구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적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개정되고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원자운동'의 경우 지난 수백년 동안 새로운 사실들이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은 계속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의 수정은 자연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되며,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모순 없는 법칙이나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반대적 실험 사실에 직면할 때나 가설에 의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과학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개선하는 것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추측'은 타당성이 있어야 '사실'이 된다.
② 일반인들은 입증된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③ 자연과학 이론의 수정 가능성은 자연과학의 약점이다.
④ 공인된 사실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의 '협약'일 뿐이다.
⑤ 과학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를 배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6.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과학에서는 가설보다 원리가 가치 있는 것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② 실험이나 가설에 의하지 않고도 과학 발전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③ 과학자의 신념에 따라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④ 실험적 결과에 따라 과학적 가설을 받아들이는 과학자의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⑤ 과학자는 과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3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더라도 사람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여전히 지지하며, 논박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①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②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아이디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③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이론을 지지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④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⑤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8. ㉠~㉤과 〈보기〉의 사고 과정이 유사하다고 할 때, 〈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보기〉

① ㉠ ② ㉡ ③ ㉢ ④ ㉣ ⑤ ㉤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방언 때문에 의사 소통이 안 된다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한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계급적 조건을 나타내며, '현대'라는 말은 시대적 조건을 나타낸다.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두루 쓰이고 있는 말이 표준어가 된다. 예를 들어, '머귀나무, 오동나무' 중에서 현대에는 '머귀나무'는 쓰이지 않으므로, '오동나무'가 표준어다. '서울'은 지역적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곳은 문화적 · 정치적 중심지이므로 여기에서 쓰이는 말이 전국 방언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말이라고 해서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말에도 방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골말이라도 표준어가 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표준어는 우리 나라의 공용어로서 국민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한다. 반면, 방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의사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 표준어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므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 방언은 실제로 언중(言衆)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 방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 있어서,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방언이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면 현장감을 높일 수 있고 작품의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독자의 흥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구한 역사의 바탕 위에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교양을 갖춘 국민으로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권리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방언을 사용하는 일도 의의 있는 일이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39.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① 방언의 가치
② 표준어의 조건
③ 표준어의 기능
④ 방언 연구의 방법
⑤ 표준어 제정의 필요성

40. 다음은 국어수업의 한 장면이다. 위 글로 미루어볼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소고기'와 '쇠고기' 중에서 어느 게 표준어일까요?
학생: 글쎄요. '소고기' 같기도 하고, '쇠고기' 같기도 하고…
선생님: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 _____.

① '쇠고기'는 '소고기'의 속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② '쇠고기'와 '소고기' 사이에는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③ '쇠고기'와 '소고기' 모두 서울 방언으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④ 원래 '쇠고기'가 표준어였지만, 현실적으로 '소고기'라고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⑤ '쇠고기'와 '소고기' 모두 서울말이지만, '소고기'는 서울 방언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41. ㉠~㉤ 중, 〈보기〉를 구체적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점〕

〈보기〉

'가오리'에 대한 방언형의 분포는, 동남 해안지역인 경주, 포항에서는 '가보리', 서북지역인 상주에서는 '가부리', 문경에서는 '가우리', 예천에서는 '가오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포 양상으로부터 '가보리〉 가부리〉 가우리〉 가오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2. 위 글의 전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이다.
②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③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④ 언어는 의미와 음성이 결합된 기호이다.
⑤ 언어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맺어진 약속이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문(學問)은 '학(學)'과 '술(術)'의 두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술'은 원래 '도로(道路)'란 의미였다가 나중에 '방법'이란 뜻으로 변화되었다. 도로라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다시 말해 지식 또는 기술인 것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두 '술'의 생활이다. 현대 문명을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생활에서 '술'의 중요성을 잘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며, 그 가치는 방법적 가치, 응용적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학'은 이와 달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근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학'의 본래적 뜻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다. '깨닫는다〔覺〕'는 말은 '안다〔知〕'는 말과 다르다.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째서 사과는 아래로만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지 못하는가를 모르는 것은 인력(引力)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깨달음과 앎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우리에게 온갖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많은 경험의 결과들이 언제나 일치되거나 조화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모순되는 때가 많다. 이런 모순에 봉착할 때마다 인간은 의문을 가지거나, 동요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겠지만, 지혜롭고 참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욕이 생긴다. 그가 느끼는 모순이 클수록 그의 해결 의욕은 더 강해진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다시 한 번 반성하여 그것을 비교, 분석, 종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 길을 발견하면 비로소 그 모순은 해결되는 것이며, 그의 생활은 지혜를 통해 풍요롭게 된다. 이것을 동양의 학자들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학'이다.

학문을 이루는 개념요소를 둘로 나눌 때, 자연과 인생 그 자체의 이해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학'과 '술'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학문적 이치와 응용은 병행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응용이 학문적 이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문적 이치 역시 응용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학문적 이치는 광범하게 응용되고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수록 진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며, 실제 응용을 통해서만 학문적 이치의 결함을 발견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후생의 방법은 자연과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결국 '술'은 '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까닭에 학문은 '술(術)'보다 '학(學)'에 치중하게 된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학은 실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술의 토대가 된다.
② 학은 근원적 가치를, 술은 방법적 가치를 지닌다.
③ 동양적인 의미에서 학은 본래 '앎'의 상태를 뜻한다.
④ 학문적 이치의 결함은 응용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⑤ 술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4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② 대상을 분석하여 요소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③ 두 대상의 공통점을 언급하여 논지를 유도하고 있다.
④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⑤ 대립되는 두 주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45. 글쓴이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과학기술의 학문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무수히 많다. 의술의 발달은 인간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를 도와 수명의 연장에도 기여했다. 또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상품 유통과 인간의 교류, 전자 통신과 자료 처리 능력의 혁신, 대중 매체의 확산 등 인간 생활에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제 인간의 우주 여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① 한 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두뇌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의 힘은 국가 경제력에 바탕을 둔다. 우리도 경제력을 키우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③ 학문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도 많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학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⑤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6.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① 그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었다.
② 그는 그렇게 소리를 친 후 그 길로 도망갔다.
③ 그가 직장을 잃고 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④ 아버지는 퇴근길에 늘 우리들의 간식을 사오신다.
⑤ 그는 어릴 때의 꿈을 이루어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춤을 흔히 멋과 흥의 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상성의 자연스런 파격'과 결부해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제멋대로'의 것이어서 강한 개성이 드러난다.

청산(靑山)도 절로절로 녹수(綠水)도 절로절로
산(山) 절로 수(水) 절로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
이 중(中)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자연 속에서의 원초적인 해방감은, 현실 세계 속에 세상만사를 마치 '타고 노니는' 듯한 자유로운 일탈마저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 일탈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탈은 단조롭고 힘겨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이나 춤에서 '타고 노니는'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장단을 먹어 주는' 것이나 '엇박을 타는' 것에도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엄격한 틀 속에서 전래되어 온 궁중악이나 궁중 춤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는 실현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변모되어 왔다. 한국인의 미적 심성에서는 ㉡판에 박은 듯한 글씨나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도자기를 굽더라도 서로 모양이 다른 것이 나오는 것에 묘미를 느낀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것이다.

같은 음악,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만큼 우리 공연 예술의 특성인 일회성이 두드러진다. 또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고정된 것을 반복하는 녹음테이프에 맞춰 하면 춤추는 사람부터가 어딘가 어색해지고 관중도 별 흥을 느끼지 못한다. 생음악의 반주여야 하고, 그것도 춤추는 사람과 반주하는 사람이 마주 보고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며 호흡을 같이해야 제대로 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과 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음악과 춤이 전혀 제각기 제멋대로 공연되어도 좋은 것이다. 이를테면, 휘모리로 마구 몰아대는 음악 반주에 춤은 거기에 아랑곳없이 아주 느리고 태평스런 춤을 춘다든지 하는 음악과 춤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에서 오히려 역동성이 드러나고, 나아가 [㉢] 음악과 춤의 만남은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일탈이나 불일치는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속에 포함되어 진행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주자와 공연자가 '죽이 맞아'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틀은 공연 현장에서의 즉흥성을 보장해 준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인 것 속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속에서의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테두리 속의 즉흥성은 춤추는 이뿐만 아니라 보는 이에게까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보장해 준다. 한국 춤은 즉흥적이어서 놀이 충동 속에서 창조적 개성이 '놀아난다'.

47. 위 글을 바탕으로 한국 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다.
② 반주자, 공연자, 관객까지도 함께 어울릴 때 멋이 살아난다.
③ 공연자나 공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즉흥성을 지닌다.
④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에서조차 벗어날 정도로 파격적이다.
⑤ TV를 통해 보는 것보다 공연장에 가서 직접 볼 때 그 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48. 다음은 한국 춤 공연을 감상한 소감이다. ㉠이 실현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우리 민족의 한을 느끼고 목이 메는 슬픔을 경험했어요.
② 고즈넉한 산사(山寺)에서 우리 차를 마시며 풍경소리를 듣고 있는 듯, 운치가 있더군요.
③ 춤꾼과 반주자의 호흡이 너무 잘 맞더군요. 나도 함께 공연하는 듯한 일체감을 느꼈어요.
④ 공연을 보는 내내, 마치 화창한 봄날에 이름 모를 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걷는 듯 편안했어요.
⑤ 공연 중에 나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고 있더군요. 그 흥겨움이 제가 겪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힘이 나게 했어요.

49.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언어적 표현의 성격이 ㉡과 다른 것은?

〈보기〉

원래 '판'이라는 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나 쇠붙이의 조각'을 의미하는데, '판에 박다'라는 말은 '사물의 모양이 같거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를 관용적 표현이라 한다.

① 태희는 귀가 엷어서 우유부단한 점이 있다.
② 명희는 아침부터 이가 아파서 점심 때 병원에 갔다.
③ 기철이는 입이 무거운 편이므로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별로 없다.
④ 용의자는 자신이 범인임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시치미를 뗐다.
⑤ 봉수는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50. 문맥상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① 춤 없이 음악만 연주될 때
② 반주와 춤이 동시에 빨라질 때
③ 느린 춤에 느린 반주가 연주될 때
④ 춤의 내용을 반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⑤ 춤과 음악이 자유로운 불일치를 이룰 때

51. 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서민들이 즐기던 춤에 드러난 풍자적 성격을 조사해 보았다.
② 스승과 제자의 춤 공연을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감상하였다.
③ 박물관에 가서 조선시대 백자에도 파격미가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았다.
④ 봉산 탈춤 대본을 읽고 난 뒤, 실제 공연을 보고 대본과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⑤ 동일한 소재를 다룬 한 작가의 작품들을 찾아 그 다양성에 주목하여 감상하였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은 저마다 저다운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본다. 그 안경의 빛깔이 검고 흐린 사람도 있고 맑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푸른 안경을 통해서 인생을 내다보느냐? 그것은 마음에 달린 문제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내다보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모두 불평 투성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에서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을 것이다.

똑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슬프게 혹은 정답게 혹은 허무하게 느껴진다.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육체를 쓰고 사는 정신인 이상, 또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이상, 누구든지 먹고살기 위한 의식주와 처자(妻子)와 친구와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돈, 건강, 가정, 명성, 쾌락 등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갖는다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문제다. 집을 지으려면 ㉡돌과 나무와 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곧 집이 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의 논리다.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행복감을 떠나서 행복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좋은 가정을 갖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

건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 또 그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갖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본다. 전자의 불행은 어디서 유래하며 후자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A]
"㉠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
고 맹자는 말했다. 그러나 맹자는 다시,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다고 단언했다. 맹자의 '항산'이란 말을 '행복의 조건'이란 말로 바꾸고, '항심'이란 말을 행복이란 말로 옮겨 놓아도 별로 의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선비는 행복의 조건을 못 갖추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맹자의 행복의 논리다.

행복의 조건이 ㉡ 행복의 객관적 요소라고 한다면, 행복감은 행복의 주관적 요소다. 행복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종합에 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면서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행복해질 만한 조건은 별로 갖추지 못하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맹자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이 있을 수 있음은 어찌된 까닭일까? 그것은 요컨대 마음의 문제다.

'㉢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고 링컨은 말했다. 행복이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어떠한 문제일까?

-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

5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립적인 두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다.
② 일반적 통념을 반박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납득시키고 있다.
③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있다.
④ 성현(聖賢)의 말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해석하여 이야기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
⑤ 두 요소를 대비한 후 문제 제기를 통해 한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53.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4. ㉢에 드러난 삶의 태도와 관련 있는 것은?

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

②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③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 김종길, 설날 아침에 -

④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김수영,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 위협하고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55.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물음을 던지면서 글을 끝맺은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② 맹자의 행복의 논리를 소개한 데에는 행복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③ 글쓴이가 마음을 '안경'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니,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쉽게 이해하게 되었어.
④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는 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⑤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언급하여,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진술한 데서는 세태를 한탄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지도 벌써 오래 되었다. 간교로운 일이 날로 치열하고, 거짓의 행위가 날로 들끓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겼다.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남의 문 밖에 서서 주인을 급히 불러 일부러 그의 노여움을 충동시켜 놓는다. ㉠ 그리고 종말에는 서로 붙잡고 격투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인 놈이 나의 둘도 없는 벗을 죽였네."

하고 외치며 그 죽은 시신을 내놓고 장차 관가를 찾아 고발하려 했다. 주인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중한 재물을 허비하고서야 일이 바야흐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야말로 험악한 일이구려. 그러나 지극히 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간사한 놈일지라도 그 꾀를 팔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상말에는 '삼정승 사귀지 말고, 내 한 몸 조심하여라.' 하였으니, ㉢이제 성(成)씨의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이구려.

[A]

성희룡(成希龍)은 상주(尙州)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집이 애초부터 넉넉하였다. ㉣흉년을 만나매 식객(食客)이 많이 모여 들었다. 여러 종이 금방 밥상을 들고 나온다. 한 종이 달음질치며,

"어떤 누덕을 진 비렁뱅이가 오더니 까마귀 병아리 차듯이 앗아갑니다." 한다.

희룡은, "아마 주린 모양이니 주어 버리렴." 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종이 또 뛰어와서, "(ⓐ) 그릇까지 망태에 넣고 가려는 것입니다." 한다.

희룡은, / "옳아, 그만둬." 하고는 그 비렁뱅이를 앞에 불렀다. 그의 얼굴은 도리어 싸울 기색이었다. 희룡은, "그릇을 팔아 먹으려는 건가?" 했다.

그는 "그러구말구."

"그럼, 내게 팔어."

"일천 오백 냥에서 조금이라두 떨어지면 팔지 않으우."

㉤희룡은 서슴지 않고 돈 일천 오백 냥을 주었다. 비렁뱅이는 한참 주인을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그의 아내를 불러 들이며,

"이 이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야."

하고는 그 묶은 것을 풀어 죽은 아이 하나를 내놓고서,

"내가 불법(不法)으로써 남에게 덤비면 그는 반드시 나를 몰아칠테니, 그가 만일 나를 몰아친다면 나는 곧 이 죽은 아이로써 그를 위협한다면 중한 재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더니, 이제 ⓑ계교를 이룩하지 못하였군요. 이건 정말 당신이 몸을 삼가는 힘이 있는 까닭이니 모든 것을 사과하우."

하고는 곧 돈과 그릇들을 던져 버리고 가 버렸다.

그리하여 성씨는 마침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 이옥, 성진사전(成進士傳) -

5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이야기는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②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③ '비렁뱅이'의 태도에 변화가 드러난다.
④ 사건의 심화 및 해소 과정이 나타난다.
⑤ 신분 차이에 따른 대립 양상이 나타난다.

57. ㉠~㉤ 중, 〈보기〉의 특성이 드러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점]

〈보기〉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은 작가의 의도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8.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벌집을 건드려서 뭘 어쩌려고…….
②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건지…….
③ 쪽박 빌려 주니 쌀 꾸어달란다더니…….
④ 놓친 고기가 더 크다고 하더니만 쯧쯧…….
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한다더니…….

59. ⓑ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사람 틈에 섞여서 밥 한 상을 달라고 한다.
② 먹고 난 밥그릇을 아무도 모르게 망태 속에 넣는다.
③ 종이 시비를 걸어오면 주인과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④ 싸우다가, 죽은 아이를 내던지고는 주인을 협박한다.
⑤ 그러면 주인이 많은 재물을 주면서 타협해 올 것이다.

60. 위 글을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비렁뱅이의 행동은 당시의 염량세태(炎凉世態)를 짐작하게 해.
② 비렁뱅이는 성희룡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
③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있는데, 성희룡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야.
④ 성희룡의 관대한 태도를 접하고 나니 인자무적(仁者無敵)이란 말이 생각 나.
⑤ 비렁뱅이의 마지막 행동에서 성희룡은 그를 배은망덕(背恩忘德)하다고 느낄 거야.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